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자연과 자연사

Nature and Natural History

자연사이야기

화석이 문화재라고?

특별기획

자연사박물관이 뭐하는 데니?

전문가 기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방구석 박물관

온라인 해설

인스타그램 & 온라인 전시

박물관 소식

연간회원 안내 & 박물관 환경 개선 공사 안내

특별전시

갤러리월

참여하기

코로나로 힘든 요즘 모두에게 위로가 될 한마디를 보내주세요.

자연사 퀴즈

최강 자연사의 달인

2020년 여름학기 교육프로그램 안내/관람안내

Summer

2020 No. 65



서대문자연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

자연사
이야기



化石

칠곡 나무고사리화석 출처 : 문화재청



화석이 문화재라고?



문화재란 무엇일까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그리고 민속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중 기념물에는 ① 절터, 옛 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총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 가치가 큰 것, ②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③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 가치가 큰 것이 해당하며, 특히 ③에 해당하는 것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고 화석도 지질학적 자료로서 문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땅속에 있다가 발견된 것이어서 매장문화재로 분류합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문화재를 크게 나누면 역사 문화재와 자연 문화재로 나눌 수 있고 자연 문화재를 천연기념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과 ‘문화’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서 모순적인 표현이죠? 앞으로는 역사적인 문화재와 자연에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압해도 공룡알동지화석 출처 : 문화재청



자, 그럼 이제 화석이 문화재(천연기념물)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화석들이 문화재에 해당할까요? 최초로 등록된 천연기념물 화석은 1962년 12월 7일에 지정된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화석 산지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중생대 백악기인 1억 3,000만 년 전에 번성했습니다. 이 화석의 특징은 고사리와 비슷한 잎을 가지고 있으나 나무줄기와 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나무고사리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22개의 화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화석 산지이지만, 신안 압해도에서 발견된 수각류 공룡 알 등지 화석은 1점의 화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1968년 5월 29일에 지정된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입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라 현무암만 있을 거로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서귀포층은 200~300만 년 전인 플라이오세에

퇴적되었는데 주로 회색 내지 회갈색을 띤 역질 사암, 사암, 이암, 세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층의 패류화석은 서귀포항 부근 바닷가 절벽에 있는 조개 종류의 화석을 말합니다. 서귀포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는 조개 같은 부족류, 달팽이 · 전복 · 우렁이와 같은 복족류, 굴족류, 완족류, 성게 · 해삼 · 불가사리 등의 극피동물, 산호화석, 고래와 물고기 뼈, 상어 이빨 등의 화석이, 그리고 미화석으로는 바다에 사는 단세포동물인 유공충이 있습니다. 조개화석은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근처 해안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더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서귀포층이 쌓일 당시의 바다가 지금보다 따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외에는 더는 새로운 화석은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고생물 학자들의 꾸준한 조사연구로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고 있고, 토목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땅을 파다가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발견된 화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석은 매장문화재라고 했으니 경주에서 발견되는 도자기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화재청에 신고해주세요. 그러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학술 가치가 있으면 보존하거나 발굴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그 의미를 연구해서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하겠죠? 화석을 함부로 다루면 문화재보호법이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석 산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고, 현장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코로나가 끝나면 화석 탐방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특별
기획

Museum

자연사박물관이 뭐하는 데니?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얼마 전 친구들이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학교를 떠나 자연사박물관장을 맡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서울의 명문대학 생물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2년간 미국에서 박사후연구원 경력이 있는 한 친구가 물었다. “자연사박물관이 뭐하는 데니?” 내 보기에 절대로 자연사박물관을 모를 수 없는 경력을 가진 친구의 질문에 나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얹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웬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사박물관이 뭐 하는 곳인지를 알 것으로 생각했던 내가 큰 오산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물관을 한자의 뜻대로 해석하자면 넓을 박(博), 만물 물(物), 객사 관(館)이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는 미술, 문화,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하고 대중에게 전시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수집품의 내용에 따라 민속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역사박물관 등으로 나눈다. 자연사박물관은 말 그대로 자연사(自然史), 즉 자연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하고, 전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사박물관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자연사박물관의 목적은 인간이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자연보존부터 기후 변화, 식량 확보, 공중 보건 및 신약개발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곳이다. 어려서부터 자연사박물관의 전시물과 자연사 교육을 통해 자연

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의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곳이다. 따라서 자연사박물관의 가치를 돈으로만 따질 수 없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중요한 곳이다.

사실 자연사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설립된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다. 나의 은사이신 고 이영노 박사님께서 미국의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을 본보기로 삼아 이화여자대학교(김옥길 총장 당시)에 설립을 추진하여 1969년 11월 20일 국내 최초로 자연사박물관이 개관되었다. 국내 자연사박물관의 역사는 이제 겨우 반세기가 된 것이다. 그 후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으나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자연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 서대문구에서 1997년 자연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첫 번째로 공립 자연사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이처럼 시대를 앞서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17년간 전시, 교육, 표본 소장 면에서 꾸준한 발전을 해왔으며 연간 35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알맞은 좀 더 수준 높은 전시와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목적지는 많은 사람이 자연사박물관에서 즐거운 배움을 통해 자연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찾아와 이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라본다.

전문가
기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대한 이해와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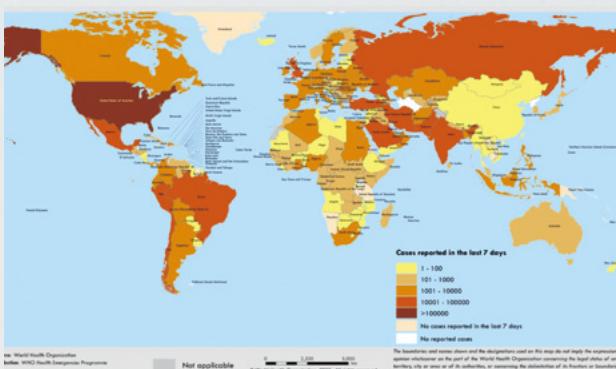
호서대학교 생명보건대학 최인호 교수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환자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었다. 이 질병은 호흡기에 감염하는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에 의해 발병되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식 명칭을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로 확정하였다.

최초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2020년 5월 중순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20만 명을 넘어섰고 치사율은 약 6.9%인데, 이는 이전에 크게 유행했던 신종플루의 치사율 0.2%와 비교했을 때 매우 위험한 감염병이다(그림 1). 코로나바이러스는 고양이, 박쥐, 낙타를 포함한 여러 종(species)의 포유류에 흔히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드물게 동물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감염되기도 한다. 인간 코로나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에게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의 감염을 유발하여 최근까지 위험한 병원체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사스바이러스, SARS-CoV)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메르스바이러스, MERS-CoV)가 동물 숙주로부터 사람으로 감염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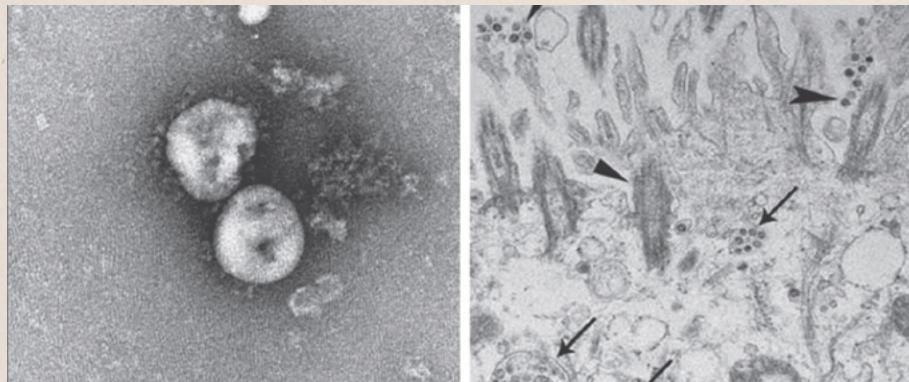


| 그림 1 |

2020년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출처: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 2019-nCoV

코로나바이러스는 외피에 둘러싸인 RNA 바이러스로서 사람에게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감염체 가운데 하나이다. 유전물질이 RNA인 것과 오류가 잦은 RNA 중합효소를 가지고 있어 짧은 돌연변이와 유전자 재조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백신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2019-nCoV의 유전자 서열을 조사한 결과 사스바이러스(SARS-CoV) 및 메르스바이러스(MERS-CoV)와 같은 종류의 베타코로나바이러스(beta-coronavirus)에 속하며, 자연숙주인 박쥐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nCoV의 크기는 대략 50~200 nm 정도이며 피막에 골프채 모양으로 생긴 당단백질 표면돌기(spike)를 가진 왕관 모양을 하여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른다(그림 2). 이 돌기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세포표면의 수용체와 상호작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의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침입할 때 수용체를 통한 세포내이입(endocytosis) 방식을 사용한다. 2019-nCoV의 경우 세포 수용체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2(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ACE2) 단백질에 결합하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허파, 신장, 심장, 혈관세포에서 발현되어 혈압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주된 증상은 호흡기 관련 폐렴 증상, 발열, 기침, 근육통이 있으며, 합병증으로 급성호흡부전증후군, 급성심장손상, 이차감염증 등이 발생한다. 혈압 관련 환자의 치료제 가운데 바로 이 ACE2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해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들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실제로 고혈압 등 만성 질환 환자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보고가 있다. 고혈압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지오텐신수용체 차단제(ARB)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I)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수용체인 ACE2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이다. 아직까지 세계고 혈압학회(WCC)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고혈압학회에서 고혈압 환자치료를 위한 기존의 약물처방을 변경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지만, 당분간 논란과 혼선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2 | 코로나19 유발 바이러스 2019-nCoV의 전자현미경 사진 (출처: <https://doi.org/10.1056/NEJMoa2001017>)



코로나19의 치료와 예방

코로나19에 특이적인 치료법이나 감염 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없으며, 백신도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전파속도를 볼 때 치료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후보 백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remdesivir), HIV 감염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lopinavir/ritonavir) 및 베타-인터페론(beta-interferon)과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임상시험 진행 중이다. 많은 확진 환자에서 림프구 수치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며 체내의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을 유발하고 급성호흡부전증후군과 패혈성쇼크 이후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증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빨리 감지하여 적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급성 호흡기 감염 환자와 밀접 접촉을 피한다.
- 손 세척을 자주 하고, 특히 환자나 주변 환경에 직접 접촉 후에 손세정을 한다.
- 농장이나 야생 동물과의 비보호 접촉을 피한다.
- 급성 호흡기 감염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기침 예절을 꼭 지킨다.
(거리 유지, 기침 시 티슈나 옷으로 가리고 손 세척 시행)
- 의료기관에 있는 경우, 특히 응급실인 경우 표준 감염 예방을 증진하고 병원에서 작업을 통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흔히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特别 일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特别 일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방역 출장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격리 후
집에서 증상을 확인하는
방법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차체 이용하기

진료 의문진에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확인하기

*증상:发热,干咳,咽痛,呼吸困难,鼻塞,流鼻涕,鼻痒,眼红,结膜炎,皮疹,皮炎,腹痛,腹泻,头痛,肌肉痛,关节痛,四肢无力,食欲不振,乏力,感觉减退或消失,嗅觉、味觉减退或消失,心悸,寒战,发冷,胸痛,咳嗽,气短,呼吸急促等。

| 그림 3 |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출처: 질병관리본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가운데 일부 세포(T, B세포)는 한번 침입한 감염체를 기억하여 재감염 시 빠르고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는 잦은 돌연변이와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형태를 바꿀 수 있어 면역세포의 훌륭한 기억력을 회피하게 된다. 결국 면역세포는 감염체가 체내에 침입할 때마다 새로운 외부물질로 인식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코로나바이러스나 HIV와 같은 RNA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염체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치료제와 예방법 개발과 더불어 전파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관리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기관의 노력에 더해 일반인들도 위해 언급한 간단한 권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행동수칙(그림3)을 충실히 실천하여 하루 빨리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위협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방구석
박물관

어린이도슨트가 들려주는 자연사 이야기

온라인 전시해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박물관이 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물관을 찾아오고 싶은 많은 어린이와 전시설명을 하고 싶은 어린이도슨트를 위하여 온라인 전시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린이도슨트가 들려주는 자연사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어린이도슨트란?

어린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하는 관람객에게 박물관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박물관의 주 관람객인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박물관이 되고자, 어린이의 눈과 목소리로 설명하는 어린이도슨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슨트 활동



모집방법 매년 2월에 어린이도슨트 모집(총 14명 선발)

모집대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중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고 자연사 분야에 관심과 지식을 보유한 학생

선발방법 ① 서류심사 : 전시해설 시나리오 및 지원서 내용으로 40여명 선발

② 면접심사 : 학년별로 구분하여 전시해설 능력 및 자연사관련 기본소양 심사

③ 선발자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방법 월 1회 이상 전시해설

문 의 02-330-8863(어린이도슨트 담당)



어린이도슨트 온라인 전시해설을 진행하면서....

안녕하세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일하고 있는 김보연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2월 7일부터 임시휴관을 하였습니다. 관람객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박물관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전시교육팀과 영상팀이 협업하여, 온라인 어린이도슨트 **영상제작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17명의 어린이가 참가 지원하여 본인이 직접 안내할 전시물을 선택하고 대본 작성까지 직접 하였습니다. 전시물의 이해를 도울 담당 학예사님과 논의한 후, 충분히 대본을 숙지하고 해당 전시물 앞에서 도슨트 영상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시간대별로 1명씩 박물관에 입장하여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긴장한 채로 카메라 앞에 선 친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걱정과는 달리, 모두 씩씩하게 큰 탈 없이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학예사님, 어린이도슨트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면서 스쳐보기만 했던 표본과 전시 물들을 더욱 가까이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어린이도슨트 전시해설 영상을 시청하시고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길 기대하며, 안전한 문화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에 놀러오세요~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요즘, 박물관에 못 놀러 와 심심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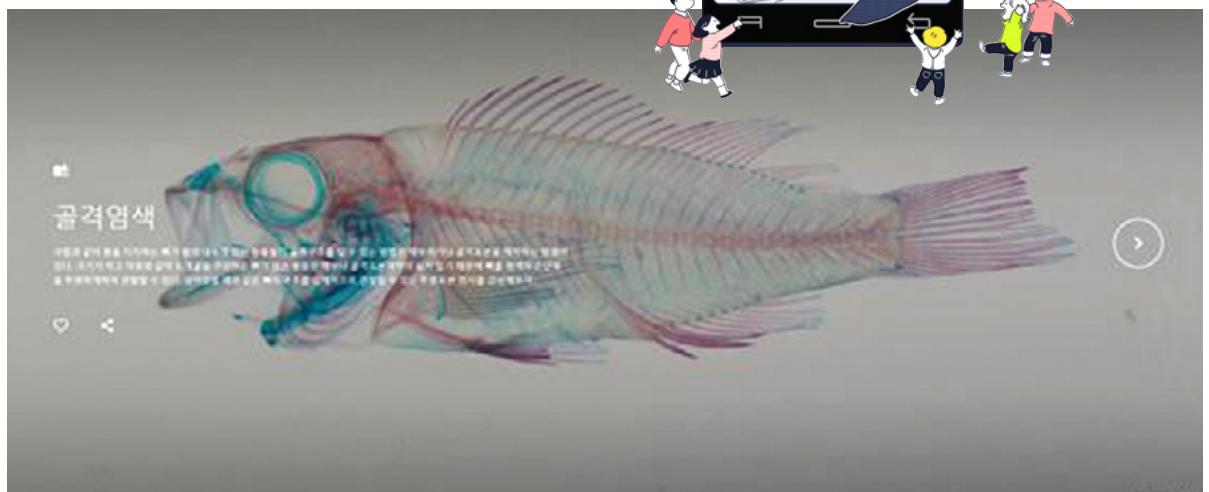
자연사박물관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namu_sdm'을 검색하세요!



온라인 전시 (Google Arts & Culture)

●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을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어요~



박물관 소식

연간회원 유효기간 연장 공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박물관 임시휴관에 따라 연간회원의 박물관 방문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회원 기간의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2019년 2차 연간회원 및 2020년 1차 연간회원

연장 기간 3개월 (90일)

2019년 2차 연간회원

- 기존 회원 기간 : 2019.06.01.~2020.05.31.
- 변경 회원 기간 : 2019.06.01.~2020.08.31.

2020년 1차 연간회원

- 기존 회원 기간 : 2020.01.01.~2020.12.31.
- 변경 회원 기간 : 2020.01.01.~2021.03.31.

참고

- 만료일로부터 회원 기간 및 혜택은 자동 연장 됩니다.(교육 신청 등의 적용)
- 연간회원 모집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월, 11월입니다.
- 해당 기간의 회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문의 02-330-8871(연간회원 담당)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환경 개선공사 시행 안내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환경 개선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박물관 주변에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사 일시 : 2020.5.6.~2020.10.2. (예정)

공사 장소 : 매표소 및 박물관 3층 야외 공룡공원

공사 내용 : 기상조건에 의한 내방객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표소 환경 개선 공사가 시행됩니다.
야외 공룡공원을 실내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B a e k d u s a n

전시명 백두산의 식물

장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전시기간 2020. 6. 2 ~ 6. 28.

※ 전시기간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시 백두산의 식물 개최

한국생물학회
전시부
비영리
단체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원시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으며, 종 다양성이 풍부해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오랫동안 오를 수 없는 산이었지만 다행히 1990년대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백두산 절반의 땅이라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식물 학자들의 조사를 통해 백두산에 1,500여 종류의 관속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식물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전 <백두산의 식물>에는 백두산 야생화탐사단에 의해 확보된 사진 자료 70여 점 및 표본자료 40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백두산에만 분포하는 식물과 우리나라 북방계 특산 식물도 소개될 예정이어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식물을 쉽게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백두산의 식물전>은 북한에 분포하는 식물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갤러리월

수화 水花,
물속에서 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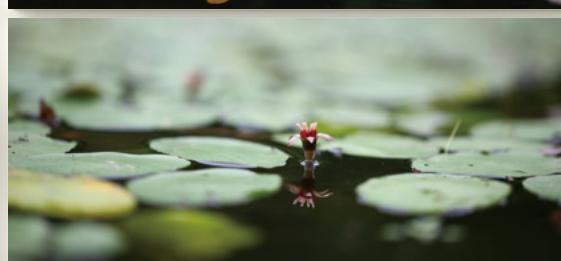
기간 2020. 6. 2.(화) ~ 8. 31.(월)

장소 자연사박물관 1층 갤러리월

내용 물속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10인의 야생화 사진가들이 카메라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논이나 연못에서 볼 수 있는 연이나 벚풀, 물옥잠, 자리풀을 비롯하여 희귀식물인 남개연, 올챙이솔, 물여뀌 등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가시연, 매화마름 등의 수생식물이 수면 위에 피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Gallery



참여 하기

코로나로 힘든 요즘

모두에게 3위로가 될 한마디를 보내주세요.

예쁘게 꾸민 손편지, 자연사박물관에서 추억이 있는 사진(간단한 사진 설명 필요) 등을 보내주세요. 우수작은 <2020 소식지 기을호>에 기사로 실리며,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 ☺ 주 제 코로나 힘내요! / 코로나 이렇게 이겨내고 있어요. /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등
- ☺ 참여방법 ① 이메일 : 사진(제목: 소식지 이벤트 참가-이름, 개인정보동의서는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
 ② 우편접수 : 손편지
 ③ 현장접수 : 손편지
- ☺ 필수기재 참가자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동의서
- ☺ 대 상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객
- ☺ 현장접수 박물관 1층 안내데스크
- ☺ 이메일 arina@sdm.go.kr
- ☺ 우편접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경영마케팅팀 소식지 담당자 (우편번호 : 03718)
- ☺ 문 의 02-330-8871 (소식지 담당자)

..... 절취선

〈개인 정보 동의서〉

이름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수집된 응모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는 오직 이벤트용으로만 사용하며, 이벤트 기간 이후 일체 폐기 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선발된 우수작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사용을 허용하십니까?

예 아니오



자연사 퀴즈

최강 자연사의 달인 퀴즈

러시아자연사박물관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연사를 거슬러 보는 사이, 지구상의 생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양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삶을 영위했는지, 얼마나 절묘하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갔는지, 어떠한 노력으로 진화를 거듭했는지 등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과학 지식을 담고 있다. 나아가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를 진지하게 탐구해 보는 좋은 기회도 제공한다. 지구상에 살다가 진화하고 멸종한 수많은 동물들이 과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유기물에 지나지 않는지,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산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봄 직하다. 더불어 46억 년이라는 거대한 시간 중 극히 짧은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지 진지한 물음을 던지게 될 것이다.



아래의 문제를 문 후 정답지를 오려 박물관 안내데스크에 직접 제출해 주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5명을 추첨하여 과학도서 1권을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경영마케팅팀 소식지 담당자
(우편번호 : 03718)

당첨자 발표 : 7월 중 당첨자 개별 연락

질 취 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

- 급성 호흡기 감염 환자와 □□ □□을 피한다.
- □ □□을 자주 하고, 특히 환자나 주변 환경에 직접 접촉 후에 손 세정을 한다.
- 농장이나 야생 동물과의 비보호 접촉을 피한다.
- 급성 호흡기 감염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 □□을 꼭 지킨다.
(거리 유지, 기침 시 티슈나 웃으로 가리고 손 세척 시행)
- 의료기관에 있는 경우, 특히 응급실인 경우 표준 감염 예방을 증진하고 병원에서 작업을 통제한다.

이름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수집된 응모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는 오직 이벤트용으로만 사용하며, 이벤트 기간 이후 일체 폐기 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2020년도 여름학기 교육프로그램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유치원생(7세) 및 초등학생
- 교육장소 :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 교육강좌 : 17과목 136강좌
- 교육일정(예정) : 2020. 8. 1.(토) ~ 8. 31.(월)
- 접수기간(예정) : 2020. 6. 27.(토) ~ 7. 13.(월)
- 모집정원 : 강좌당 20명 선착순모집
- 접수방법 : 박물관 홈페이지(<http://namu.sdm.go.kr>) 선착순 접수
- 수 강 료 : 15,000원/인 (연간회원 12,000원/인, 교육생 및 보호자 1인 입장권, 교재, 재료비 포함)
- 문 의 : 02-330-8870

• 교육내용

학년	과목명
유치부(7세)	집짓는 선수 거미, 동물올림픽
초등 1학년	개구리와 뱀, 모기를 잡아라, 하늘의 헬리콥터 잠자리
초등 2학년	내가 만든 정수기, 바다 물고기, 갑옷 입은 연체동물
초등 3학년	나의 별자리 찾기, 민물고기의 생태, 석탄과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헤엄치는 물속곤충
초등 4학년	나도 기상 캐스터, 나도 광물을 감정할 수 있다, 자원식물
초등 5~6학년	태양표면 검은 점들의 정체, 조류해부



- 교육대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 교육내용 : 박물관 전시물을 이용한 자연사교육
- 교육시간 : 전시장교육 + 교육실교육 120분(유치부는 90분)
(오전)10시~12시 / (오후)15시~17시(동절기 : 14:30~16:30)
- 접수기간 : 매월 중순 ~ 익월 수강생 접수(자세한 일정은 접수일 1주 전 홈페이지 공지)
- 접수방법 :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수 강 료 : 15,000원/인 (연간회원 10,000원/인, 교육생 및 학부모 1인 입장권, 교재비 포함)
- 문 의 : 02-330-8869

관람안내

관람시간

• 3월 ~ 10월 09:00~18:00 • 11월 ~ 2월 09:00~17: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개관합니다.

※ 폐관시간 1시간 전까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화, 수, 목, 금(공휴일 제외)요일에는 박물관 1층을 무료 개방합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상호 할인(20%) 서비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시설명안내

도슨트 전시설명 : 오전 11시 / 오후 2시 / 오후 4시 (주말·공휴일)

※ 안내방송 후 중앙홀에서 설명이 시작됩니다.

어린이도슨트 전시설명 : 학기중 주말, 방학중 주중 및 주말

※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어린이도슨트가 전시장에 보이면 전시설명을 요청해 주세요.

휴관안내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은 휴관입니다.

오는 길

- 지하철 신촌역(2호선) 4번출구(신촌로터리앞) 서대문03(연일교통 마을버스)
- 지하철 홍제역(3호선) 4번출구(무악재방향) 7738 (가좌교통)
- 간선버스 : 110, 153 • 지선버스 : 7017, 7720, 7738